

## 대구경북 지역민과 함께하는 열린 축제의 장 2025년 세계기상의 날 기념 다채로운 행사 개최

- 대구지방기상청 기념식(3.20.), 기상기후사진전(3.21.~3.28.), 국립대구기상과학관 무료관람(3.15.~3.23.) -

대구지방기상청(청장 이현수)은 세계기상의 날(3.23.)\*을 맞아 기상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행사를 통해 지역민과 소통하고 기상기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3월 20일(목)에 대구지방기상청에서 ‘2025년 세계기상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세계기상의 날은 세계기상기구(WMO)의 발족(1950. 3. 23.)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날로, 우리나라는 1956년에 68번째로 세계기상기구에 가입하였고, 세계기상기구(WMO) 회원국은 매년 주제를 정하여 기상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올해의 주제는 ‘모두가 기상재해로부터 안전한 일상, 조기경보와 함께(Closing the Early Warning Gap Together)’이다.

대구지방기상청에서는 세계기상의 날의 의미와 주제에 대해 지역민과 공감하고, 기상업무의 중요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3월 19일(수) ‘대구지방기상청장이 전하는 세계기상의 날 소개’ 특별 인터뷰를 시작으로 행사가 열린다. 3월 20일(목)에는 WMO 사무총장의 축하영상과 기상업무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수여식이 진행된다.

부대 행사로는 다양한 기상기후 현상과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을 사진으로 만날 수 있는 ‘2025년 기상기후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3.21.~3.28.)와 측우기 국보승격 5주년을 기념하는 ‘측우기 포토존’ 등 체험 프로그램이 국립대구기상과학관에 준비되어 있다.

또한 보다 많은 분들과 세계기상의 날을 함께 기념하고자, 3월 15일(토)부터 3월 23일(일)까지 국립대구기상과학관에서는 무료 관람 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대구지방기상청장은 이번 세계기상의 날 행사가 “지역민과 함께 소통하는 즐겁고 유익한 기상과학 행사로 거듭나길 바라며, 기후변화와 날씨는 우리의 삶과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위험기상에 대비한 조기경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지방기상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변화 이해확산과 맞춤형 기상기후서비스를 확대하여, 지역민의 안전과 생활 편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담당 부서	대구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책임자	과 장	이경철 (053-282-0110)
		담당자	주무관	김정희 (053-282-0118)

